

'선글라스 낀 물고기' 살아있는 동화 만든다

SK브로드밴드 'Btv'
동화 공모전 열어... 콘텐츠로 제작

SK브로드밴드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만드는 'B tv 살아있는 동화 크리에이터(Creator)!' 공모전 시상식을 16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B tv 살아있는 동화 크리에이터!' 공모전은 아이와 보호자가 한 팀을 이뤄 동화 이야기를 작성하고 아이가 이야기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 참여하는 가족 이벤트다. 총 상금은 700만원이다.

대상은 '선글라스 낀 물고기'가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별님을 만드는 황금토끼' '떡보쟁이 블랙홀'이 선정됐다.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인기상은 '파란눈개미의 정글 여행' '내 별명은 외계인'이 수상했다. '선글라스 낀 물고기'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항상 밤인 줄 알



대상을 받은 선글라스 낀 물고기. /SK브로드밴드

고 잠자던 물고기를 위해 바닷속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기발한 아이디어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상을 받은 남윤영 고객은 "막내가 그린 그림에 첫째 아이가 이야기를 붙이고 남편도 거들면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공모전 참여 고객들은 바다, 정글, 우주 중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동화 스토리를 만들고 아이가 직접 그린 동화 장면을 제출했다. 이 작품들은 본선에서 동화 전문가로 이루어진 멘토단의 조언을 거쳐 완성됐다.

SK브로드밴드는 본선 진출작 10작품을 지난해 11월 제43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 B tv 키즈 부스에 전시했고, 부스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현장 인기 투표를 진행했다. 또 본선 진출 고객들을 유아교육전에 초청해 멘토와의 시간도 마련했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으며, 수상작은 살아있는 동화 콘텐츠로 제작될 예정이다.

살아있는 동화는 동화 속 캐릭터의 얼굴에 3D로 분석한 아이의 얼굴이 덧씌워져 아이들이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동화 스토리를 익힐 수 있는 B tv의 서비스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케어 '안락사 논란'의 쟁점



기자 수첩

김 유 진
(산업부)

국내 대표 동물보호단체 중 하나인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유기견을 구조하고 안락사를 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공분이 일고 있다.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의 이같은 행동에 후원자들은 물론 유기견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적잖이 놀란 분위기다. 후원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안락사 문제에 이어 '마취 안하고 약물을 주입했다', '사체를 수의대 해부용으로 기증했다' 등의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오랫동안 유기견에 관심을 가져온 기자는 대학생 시절 박소연 대표를 서울의 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만났다. 그는 당시 보호소에 있던 몇 마리의 유기견을 보여주면서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유기견들이 있어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들부터 적극적으로 입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이후로도 기자는 케어의 유기견 구조와 입양을 준비하는 운영 과정을 SNS에서 지켜봤다.

박 대표의 가장 큰 실수는 안락사를 후원자들에게 감쪽같이 숨겼다는 사실이라고 기자는 생각한다. 케어 외에 대한민국의 수많은 동물보호단체들은 많지 않은 후원금으로 매일같이 유기견과 투기견을 구조하고 사료를 먹이면서 동물들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힘쓰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비영리 단체의 손길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유기견이 매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호단체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박 대표 입장에서는 좀 더 건강하고 어렵고 입양확률이 높은 유기견들에게 더 손길을 주고 반대로 병이 들고 노쇠한 유기견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다. 정말 잔인하게 도축돼서 식용으로 팔려가는 유기견들의 삶을 아는 대표로서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번 안락사 논란은 한 동물보호단체의 실수만이 아닌 대한민국 동물보호실태의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단편적인 이번 사례로부터 적극적으로 입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이후로도 기자는 케어의 유기견 구조와 입양을 준비하는 운영 과정을 SNS에서 지켜봤다.

/ujin6326@metroseoul.co.kr

현대백 설 앞두고 협력사 대금 4924억 조기 지급

현대백화점그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돕기 위해 결제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 협력사들이 명절을 앞두고 급여 및 상여금 등 각종 비용 지출이 늘어나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조기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백화점과 현대홈쇼핑 등 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7200여 협력사의 결제대금 4924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설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조기 지급되는 협력사는 현대백화점과 거래 중인 2600여 곳을 비롯해 현대홈쇼핑·현대그린푸드·한신·현대G&F·현대리바트·현대FCN·현대백화점면세점·에버다임 등 10개 계열사와 거래하는 4600여 곳 등 모두 7200여 업체다.

앞서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해 추석 4400여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4705억원의 결제대금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들 중소 협력사의 결제대금을 정상 지급일(백화점 1월 30일·그 외 계열사 1월 31일)보다 최대 6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오는 1월 25일까지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직원 상여금 등 각종 비용 지출이 늘어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 협력사들의 위해 결제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인 상생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오늘의 운세 1월 17일 (음 12월 12일)

http://www.saju4000.com

쥐 48년생 해 저무는 강가에 서 있는 기분. 60년생 모래 위에 세운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72년생 마음이 상하고 몸은 힘드나 재물은 얻는다. 84년생 사람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자신임을 잊지 마라.

소 49년생 친구가 나를 곤경에 빠뜨린다. 61년생 새로운 기회와 인맥을 얻기 좋은 날이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 73년생 가족의 협조를 얻어 힘든 일을 처리. 85년생 다소 예민한 날이니 말조심하자.

호랑이 50년생 지나치게 강경하면 부러진다. 중용을 지켜라. 62년생 항상 태양은 떠 있음을 잊지 말고 살라. 74년생 일이 미뤄져도 느긋하게 기다리면 해결. 86년생 간교한 속삭임이 있으니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

토끼 51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행동. 63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쇼핑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75년생 공기가 맑으니 여행을 떠나보자. 87년생 동료와의 협업이 서로에게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뱀 52년생 결과부터 챙기지 말고 계획을 잘 세워라. 64년생 새로운 일에 도전장을 제시하는 날이다. 76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스럽다. 88년생 옛 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할 때 좋은 재운이 들어온다.

말 53년생 격한 언쟁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결과. 65년생 장래 발전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하루. 77년생 분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89년생 갑자기 즐거운 일이 넘치니 뭘 해야 하나 고민스럽다.

말 54년생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이는 법이니 이랑을 베풀자. 66년생 생각지 않은 초대로 하루가 즐겁다. 78년생 건강이 우선이니 먹는 것에 주의. 90년생 새 인연으로 새로운 거래가 생기니 이 또한 좋다.

양 55년생 다툼이 있으나 조력자가 옆에 있어서 다행. 67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하지만 현상유지가 최선. 79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 의견통일이 우선. 91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거운 날.

원숭이 56년생 새로 시작한 일에 기대가 크나 실리는 없다. 68년생 변동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앞만 보고 전진. 80년생 가족이라도 금전 거래는 금물 해야. 92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

닭 57년생 생선을 먹고 싶다면 그물을 먼저 준비. 69년생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내 허물도 튀어나오니 주의. 81년생 규칙적인 운동과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을 챙기자. 93년생 결과만큼 노력하는 과정도 중요.

개 58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오는 법. 70년생 금전 문제 아니면 주변에 속상할 일이 생긴다. 82년생 예의 바른 행동은 어딜 가나 대접받게 한다. 94년생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시비도 있을 수.

돼지 59년생 귀인을 만나면 장기투자도 괜찮다. 71년생 남의 의견에 좌우되지 말고 주관을 갖고 행동. 83년생 집 나간 말이 새 식구를 데려오는 격이니 이익이 많은 날. 95년생 귀찮고 심드렁하겠으나 불평마라.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6			
			4		3			
1				2				4
	3			4			1	
		4	5		6	2		
	9			1			6	
8				3				7
			6		4			
		9		5		1		

		5			8			2
2					9			6
		1					8	
	3				7		9	
9			3		1			7
				5	2			8
			2				4	
4			1					5
	1			5				3

스도쿠 정답								
9	7	1	8	5	2	6	4	3
6	8	3	7	9	1	5	2	4
2	5	6	4	3	8	9	7	1
8	9	7	1	5	2	6	3	4
3	6	2	9	8	5	7	1	4
5	1	4	2	7	6	8	9	3
7	6	5	2	8	4	9	1	3
1	5	8	9	7	3	2	6	4
4	2	9	1	6	4	5	8	7

문제 제공= 보누스

김상회의四季 세상과 다투지 마라



새해 벽두부터 슬픈 소식들이 들려온다. 희망을 염원하며 여기저기서 설 새 없이 축하인사도 받고 보내기도 하지만 벌써부터 인생사 고해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방송매체나 신문에서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려온다. 때로는 인간의 탐욕과 무지로 인해 불행이 오기도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인생사 사고나 불행은 어찌해야 하는가. 화의 원인은 탐심인 것은 자명하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감정인 분노이며 화인 것이다. 슬퍼하거나 우울해하는 것도 화의 또 다른 모습이 라고 본다. 내가 원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수동적인 화의 표출이 우울증이며 슬픔이라고 보는 것이다. 상대방이 무례하다고 나의 감정이나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화를 내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화의 표출을 외부로 할 때는 욕이나 폭력 살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그 화를 내면으로 표출하는 것이 우울증이나 비탄이 되는 것이니 이 역시 세상을 향한 다툼이며 자신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화를 냈을 때 가장 먼저 그 화살을 받는 이는 바로 화를 낸 자신이다. 스스로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몸의 세포에는 독이 퍼져 나온다. 화를 냈을 때의 폐해는 여러모로 말할 것도 없기에 석가모니부처님은 화를 내서 유익함이 있다면 나도 화를 냈을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유교와 불가에서는 조건 없는 결과는 없다고 말한다. 우연은 없다는 것이다. 모든 현상은 조건 지어진 행위나 현상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 인과의 조건은 지금 살고 있는 이생뿐만 아니라 이미 전생, 전전 생등 끝도 시작도 없는 수많은 생을 나고 죽고 하면서 인연 지어진 업연의 결과이다. 그렇다고 보면 인생은 답이 없다. 그저 갈 뿐이다. 다만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알아 늘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 내가 행복 하길 바라다면 남의 행복도 존중해줄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다보면 세상과 다투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이 반드시 자신의 탓만은 아니겠지만 굳이 스스로를 상처 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세상과 다투지 마시라!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7400206 2002년5월28일 제412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7450111 2017년3월09일 제0226호